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4년 6월 16일
제목	예루살렘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
본문	누가복음 19:41~44

녹취

• 서론 -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복음이라면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이다. 우리가 이 답이 나와 된다. 이것을 정말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발견하기가, 이 답을 내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미국에 어느 다락방 하는 목사님 LA에 사역하시는데 그런 말을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 답을 내기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답이 나와 된다.

바울도 이 답이 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발견하기 전에는 앞장서서 살기가 등등하여 복음을 반대,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전도자를 핍박했다. 이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다메섹 가는 길에 바로 빛을 비춰주셨는데 빛을 받은 것이다.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셔서 빛을 비춰주신 것이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답이 있다. 그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오직 그리스도 정말 바울이 여기에 답이 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진짜 이 답이 나와 된다.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회에 또

다락방 하는 전도 사역에 진짜 인도받으면 이 답이 나와 된다. 다른 답은 답이 아니다. 결론 아니다. 이 답부터 나와 된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가?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나니아 중직자가 그리스도의 지시하심 받아 사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한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바울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 말은 진짜 눈이 열리게 되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을 잡게 되었다는 말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생겼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번 여름 램네프사역을 위해서 세계램네프대회 우리 교회 램네프들, 또 우리 교회 램네프들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헌신을 하는데 다음 주일에 특별히 세계 램네프대회, 이번 우리 교회 여름 램네프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야 된다. 원니스로 기도하고 원니스로 헌신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 교회도 맞고, 우리 교회 모든 램네프 부서들 사역에 전환점을 맞도록 그런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진짜 원니스로 헌신해서 우리가 중요한 전환점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본론

1. 네 눈에 숨겨졌도다. (즉 우리는 보아야 한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온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41)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42)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43)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44)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이시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신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그 시점이다. 그러할 때에 오늘 예루살렘의 성과 이스라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 성을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서 우셨다고 했다.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1) 영적 무지로 영적 눈이 감긴 이스라엘

영적 무지와 영적 눈이 감긴 이스라엘.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에 그 사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콧대 높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뭔가 영적으로 눈이 감긴 것이다.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감긴 것이다. 평화에 관한 법을 알지 못하냐고 했는데 중요한 것 보지 못하고 있다. 네 눈에 숨겨져 있도다 이 말은 영안이 열리지 못했다. 영안이 감겼다. 언약을 놓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복음을 놓치고 전도, 선교를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놓친 영적 무지, 영적 눈이 감긴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성을 보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즉 이스라엘 민족들 보시고 슬퍼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눈이 감겨 있구나.

복음을 놓칠 때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복음을 놓치게 된다. 복음이 사라지게 된다. 눈이 감긴다. 언약과 중요한 것을 다 놓친다. 그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을 놓친다. 우상을 섬기고 재앙이 임하여 멸망당하고 결국 후대들 노예, 포로, 속국 그리고 유랑민으로 후대들까지 정말 망하게 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다.

2) 바리새인과 그 대열 속에 선 자들

이 악한 바리새인과 그 대열 속에 선 자들 단 하나 이 눈이 감겨있고 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 이들은 우리보다 나빠서가 아니고 언약 하나 복음 하나 놓친 것이다. 여기에 눈이 감긴 것이다. 이게 제일 큰 영적 무지다.

가인이 눈이 감겼다. 숨겨진 복음의 비밀 알지 못하고 창 3:15 여자의 후손, 피 언약 이런 것 몰랐다. 즉 그리스도 놓친 것이다. 또 에서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이 말은 복음,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화 이 중요한데 언약에 관한 중요한 것을 경홀히 여겼다. 알지 못했다. 중요하게 보지 않은 것이다. 지금 당장 배고픈데 팔죽 한 그릇, 떡 그게 필요하다. 그게 급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한 것이다. 또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달리 벗단 들디 절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합니다 할 때에 비웃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즉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언약을 모르는 것이다. 이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다. 또 사울 왕은 언약, 성전 건축, 세계복음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다윗은 하나님의 여호와와 신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충만하여 이 언약을 확인했다. 언약계, 즉 그리스도 언약계 모시는 성전, 왜 필요한가? 평생에 성전건축. 성전 건축은 세계복음화의 영적 플랫폼이다. 중요한 것을 알았다. 다윗과 달리 사울 왕은 필요 없다. 관심도 없다. 다만 육신의 것, 왕 자리, 그리고 마지막에 악신에 충만하여 결국 멸망받았다.

이 언약의 반대되는 흐름에 정점에 선 사람이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이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 무리들이다. 예수가 어째서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주 어째서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인가? 즉 그리스도인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거부했다. 영안이 도무지 감겨서 이 중요한 것 감춰졌다.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환영,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 대열 속에 섰다. 그 중요한 영안 감겨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 또 가롯 유대 심지어 열두 사도 대열에 세계복음화하는

가장 축복된 사도의 대열에 부름 받았는데 딱 하나 그리스도 사실 몰랐다. 그리스도 몰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십니다 고백한 게 아니다. 언제나 선생님이여, 랍비여 그랬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언약이 없다.

또 헤롯 왕, 누가복음 뒤편에 보면 나온다. 나쁜 왕이라기 보다는 권력을 잡은 대단한 왕인데 다만 그리스도를 모를 뿐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의 증거가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역시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른 임금 태어났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평생 간다.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받는데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냈다. 재판하라고.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고 비웃으면서 네가 하나님 이냐? 즉 그리스도냐 하면서 조롱했다. 헤롯 왕도 이것을 못 본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헤롯 왕과 빌라도가 원래 원수인데 친구가 되었다. 참 희한하다. 이 헤롯왕도 몰랐다. 그리스도를 모른 것이다. 빌라도 총독 이도 로마의 총독으로서 훌륭하고 성공 자리에 올랐는데 나쁜 사람이라기 보다는 예수님을 재판한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했다. 이러할 때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가 양심 있는 자다. 예수님의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가 없다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러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는 대신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우성쳤다. 이때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나는 모르겠다 하고 물로서 손을 씻었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 말은 무엇인가? 나는 이 피에 관계없다, 모른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다. 나는 모르니까 이 피 값을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그 핍박 환란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데 생명 걸고 핍박, 환란 상

관없이 순교하고 이러할 때 가장 핍박한 자가 누구인가? 바로 바리새인과 이들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건 결과가 나온다.

3) 예수님이 우신 이유 - 복음, 전도, 선교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에 오는 재앙을 미리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가까이 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신다. 예수님 감정이 많으신가? 그 말이 아니고 복음, 언약, 전도, 선교 놓친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멸망, 재앙이 다가오는데 전혀 모르고 그것을 아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말씀한다.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마지막에 정말 멸망당할 때 모습을 예언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무리들이 그래도 끝까지 항전하고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냥 포위해서 꼼짝 못 하게 계속 있는 것이다. 항복하면 끝날 일인데 항복하지 않고 그런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먹을 것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쥐도 잡아먹고 먹을 수 있는 것 다 잡아먹고 나중에 안되니까 자녀들 갓난아기들 오늘은 너희 아기, 내일은 어디 아기들 잡아먹었다. 얼마나 비참한가? 이러할 때 로마 군대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성벽 주위로 토돈을 흙으로 성을 쌓았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게 했다. 그리고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과 헤롯성을 둘 하나 둘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다음에 말씀하죠. 둘 하나 둘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릴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것이다. 너와 네 자녀들 땅에 매어치며 사정없이. 바리새인들도 칼로 목 날아가고, 그런데 그다음 말이 참 안타까운 말인데 역사에 나타난다.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얼마나 비참한가? 후대들이 그렇게 멸망당

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 후대들은 전 세계 유랑민이 되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한다. 예루살렘 성벽 실제로 무너졌고 제일 중요한 언약적인 중요한 면에 성전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놓친 거대한 성전, 예수님 공생애 초창기에는 제자들이 자랑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때 느닷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때 벌써 예루살렘 성전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돌 하나 돌 위에 실제로 남지 않고 무너뜨렸다. 완전 멸망받았다. 실제로 로마 그리고 세계사 역사에 로마 군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후70년에 완전 멸망받았다.

전 세계 흩어져 유랑민 되고 나라 잃은 유랑민 2천 년 동안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 가나 유대인들 경제 밝잖아요? 성공했다. 돈도 벌고. 나라 잃은 가운데 전 세계 흩어졌는 가운데도 은행업 만들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 제일 잘한 게 유대인이다. 전 세계은행 모체가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후대들이 멸망을 당했는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사이에 나치 히틀러에게 6백만이 학살당했다. 가스실에 죽고 생체실험에 죽고 6백만이 학살당했다. 강제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되고 고통당하고 죽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시체를 태우는데 화장터가 수용소마다 있어서 계속 화장을 했다. 유럽집회 독일에 베를린에서 처음 집회할 때다. 유럽집회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있다고 해서 역사적 현장이니까 전도자들 가보려고 해서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거기에 보러 갔다. 많은 목사님들, 전도자들과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일부러 가봤다. 수용소가 나치 수용소가 여러 군데 여러 나라에 있었다. 독일, 폴란드 점령지마다 오스트리아에도 세우고 폴란드에도 세우고. 베를린에도 큰 수용소가 있었다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건물은 복원한 것도 있고 터는 그대로 놔뒀다. 그대로 있는 건물도 있다. 일단 수용소 규모 자체가 엄청 크다. 거기에 유대인들 유대 민족만 모아서 강제로 이래서 역사에 본 그대로 이루어졌다. 들어보니까 설명

을 하는데 파리목숨처럼 사형시키고 그것도 같이 있는 동족 유대인들 다 보도록 하고, 얼마나 독일 의학이 발전했는가? 일본도 그랬지만 생체 실험하는데 말하자면 병원인데 수용소 안에 크게 있다. 그게 그대로 있다. 복원시켜서. 이렇게 끔찍하게 당했다.

나라들 가운데 패전 기념일과 망한 패전, 망한 기록을 기념하는 나라 그리고 심지어 패전 멸망 기념관을 세워서 역사 대대로 교육하는 나라 한 군데가 있다. 그게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이다. 우리도 일제에 잡아먹혀서 조선 망하고 일제 36년간 식민지 나라 잃은 서러움 겪었다. 그런데 그에 비할 게 아니다. 그게 유대인인데 바리새인 후대들이다. 이유가 딱 하나다.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쳤다. 야곱보고 하나님 축복했다. 환도뼈를 쳐서 절면서까지 야곱이 그날 밤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셨다. 네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도적놈이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름이 무엇인가? 세계복음화하는 이름이다. 야곱의 열두 아들 열두 지파다. 민족, 나라다. 세계복음화하는 민족,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복음 놓치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놓친 그 이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자 그 말인가? 우리도 잘 확인해 봐야 된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신 예수님이다.

2. 미래의 멸망과 재앙을 막을 언약을 잡아야 한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다. 우리 교회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겠는가? 앞으로 미래 멸망과 재앙이 다가온다. 이것 막는 언약을 잡아야 된다. 절대 놓쳐서 안 된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다락방이 오직으로 잡는 말씀인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1) 오직 복음 즉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망대로 세워야 된다. 사탄이 다른 것 하는 것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것 하나 결과적으로 놓치고 이 복음이 사라지도록 만든다. 저와 여러분 미래 멸망과 재앙을 막을 언약이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답이 나와 된다.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

2)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000 종족 살리는 것 밖에 없다.

두 번째는 오직 복음 증거하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길 밖에 없다. 우리에게 언약으로 이미 주셨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777 기도, 망대 기도라고 하잖아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는 것, 그것만이 다가오는 미래 재앙과 모든 멸망을 막을 유일한 답이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것을 잡아야겠다. 다락방에 이것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가정, 집, 가정가문 바로 이것을 잡은 가정가문 되어야겠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는 직장, 산업 바로 이것을 위한 언약 잡은 나의 직장, 산업, 기능, 일이 되어야 된다.

3) 오직 우리의 후대, 자녀들 살리는 길 밖에 없다. 이 언약 속에 서도록 언약을 전달하자.

또 한 개 있다.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멸망받을 때 네 어린 자녀들이 땅에 매어침을 당한다. 이 말은 자녀들이 멸망당한다. 바벨론에 멸망받을 때도 그랬고 바벨론 망할 때 시드기야 왕만 눈을 빼고 채찍으로 친 게 아니다. 어른들, 시드기야왕 어른들 보는 앞에 자녀들은 미래 아닌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칼로 칠 뿐만 아니라 어린 젖먹이까지 매어쳤다. 그리고 남

아있는 자, 물론 그 속에 남은 자, 복음 가진 자 다니엘과 언약 잡은 제자들이 끌려갔습시다만 다 끌고 갔다. 이 멸망이 다가온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막아야 된다. 그게 뭐겠는가? 잘 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살 텐데 뭐 그렇게 오겠는가?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 복음 놓치고 오직 전도, 선교 놓치고 사탄의 전략에 속으면 우리 후대들이 똑같은 비참함을 당할 수 있다. 들어보니까 나라 망하니까 할아버지 독립운동 한다고 일본 하면 이를 갈고 그 전달받은 아버님, 자녀들, 특히 우리 아버님 철두철미하다. 일제시대에 억울하게 당한 슬픔들, 식민지배 한 것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그게 안 들을 수 없죠. 제 머리에 뇌에 각인 안 될 수 없죠. 기억해야 된다.

4) 이 언약들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아예 망대로 세워라.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이것 발견하도록 하셨다. 우리 자녀와 후대를 진짜 살리는 길,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있다. 우리의 자녀들 램넌트로 일으키는 램넌트 운동이다. 복음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이다. 이를 일으켜 램넌트 운동, RUTC 운동이다. 램넌트 운동, 오직 이것 되어야 된다. 다락방 이것 발견했다. 이번 여름에도 램넌트 운동하는 가운데 여름에는 영적 흐름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램넌트 운동하는 중요한 이것을 한다. 그게 세계램넌트 대회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 우리 램넌트 운동하는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여기에 발판 되는 어른들, 중직자들, 산업인들, 부모님들 기도 24, 그것도 기도 24 하는 가운데 언약 전달하는 발판의 모든 사명자들, 부모님들, 사역자들, 중직자들, 교역자들 다 되어야 된다. 이번 여름에 오늘도 보니까 램넌트 주일 예배 보이는 램넌트까지 안 보인다. 이 중요한 언약 전달해야 된다. 다음 주에 이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짜 헌금해야 된다. 그게 자녀와 후대들 미래를 살리고 미래 재앙을 막고 살리고 미래 다가오는 재앙을 막고 치유하고 살릴 미래

망대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왜 바울이 회당을 파고들었는지 우리도 알아야 된다. 그게 램넌트 운동이다. 또 금토일 시대 본격적으로 열어 램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자.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말씀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여자들이 끝까지 따라와서 울었다. 충성이긴 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고맙다, 너희들밖에 없구나 그런 게 아니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오히려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게 중요한 램넌트 운동의 뭔가 있다. 우리 올해 여름에 다락방이 중요하게 보고 RUTC 뉴스에 광고를 많이 한다.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집중기도 하시고 이번 여름에는 휴가를 조절하셔서 함께 램넌트 운동하는, 램넌트 일으키는 중요한 사역인 세계램넌트대회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메시지 받고 기도하고 우리 언약 전달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어른들 우리도 시원찮은데,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잘 못해도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번 여름에 그것만 있는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램넌트 일으켜야 되는데 중요한 기회로 삼는 중요한 여름 사역이다. 정말 기도하자.

그래서 이 언약들 우리 램넌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우리 램넌트들이 그릇 준비, 아예 미래 준비하는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사역도 하고 램넌트의 발판 되고 헌신하자.

• 결론

미래 재앙을 막고 멸망을 막고 치유하고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마 24:14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 만민에게 237 5천 종족 현장에 이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고 그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일에 증인 되고 주역되시고 램넌트 일으키는 여기에 다 발판 되는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

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 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 흘리며 중요한 말씀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언약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 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진짜로 언약 전달하고 키우는 중요한 사역 램넌트운동.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뇌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올 여름도 뜨거운 여름 다가오고 있는데 램넌트 운동, 램넌트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램넌트들 다 인도받고 램넌트의 발판 되어 기도하는 모든 중직자들, 산업인들, 부모님들 다 중요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인도받아 램넌트를 일으키고 미래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고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